



한중 외교차관보 화상회의..."한반도 평화 실질 진전 협력"(종합)

기사입력 2020-07-23 20:43

| 기업인 신속통로 확대 등 긴밀 협력...하반기 고위급 교류도 지속 추진



한중 고위급 화상회의(서울=연합뉴스) 김건 외교부 차관보가 23일 오후 뤼자오후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0.7.23 [외교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23일 뤼자오후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화상회의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협력과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기업인 신속통로 확대와 항공편 증편, 유학생 등에 대한 예외입국 확대 등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며 올해 하반기 고위급 교류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는 연내로 추진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또 최근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 의지도 재확인했다.

한편 변철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도 이날 추이아이민(崔愛民)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장과 화상 회의를 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한중간의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중국간 영사국장 화상회의(서울=연합뉴스) 변철환 재외동포영사기획관이 23일 추이아이민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장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0.7.23 [외교부 제공]

gogo213@yna.co.kr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 ▶[팩트체크]개헌없이 국회·대법원 옮길 수 있나?
- ▶제보하기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1766498>